YUANTA Research Center

17. September. 2025

YUANTA YESG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확장된 EU-일본 녹색금융 협력

01 ESG 이슈 포커스

02 ESG ETF: 유형별 자금 동향

03 Global ESG: Fund/ETF 성과 분석

04 ESG 발행시장 동향

05 ESG 벤치마크 성과 & 자금 동향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Economist / ESG 김호정
02-3770-3630 / hojung.kim@yuantakorea.com

EU-일본 녹색금융 협력 전략

유럽연합(EU)이 투자자 친화적인 금융규제 개편과 일본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대규모 녹색자본을 유럽으로 유치하는 포괄적 전략을 발표했다.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크 EU 금융서비스 집행위원이 도쿄에서 열린 지속가능금융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이 구상은 EU와 일본이 각각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EU는 현재 지속가능금융 규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지속가능금융 규제의 단순화와 보고 및 실사 의무 대상 기업 수의 축소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과 기업들의 규제 부담 경감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되 핵심적인 환경 책임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EU의 지속가능금융 규제는 실제 자본을 녹색투자로 연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의 경우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EU 택소노미 규정 역시 기업 채권 발행이나 지속가능투자 기준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U의 이번 결정대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완할 경우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환금융 체계 구축이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자금을 확대 유입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와 일본은 2024년 7월 제30차 정상회의에서 '경쟁력 동맹(competitiveness alliance)'을 공식 출범시키며 기후·에너지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30년 기후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각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의 주요 과제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적 의존 축소, 첨단기술 보호 등이 제시되었으며,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알부케르크 위원은 핵심 보고 기준과 지속가능금융 요건의 조율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민간 자금 유입 확대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청정에너지 전환은 EU와 일본 양측의 공통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EU의 2022년 에너지 소비량은 약 16억톤 석유환산량에 달했으며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 4억3000만톤을 소비했으며, 특히 LNG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상사가 비용 상승을 이유로 해상풍력 3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 역시 국방 투자 확대 목표와 지속가능금융 규제 간의 조율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EU-일본 양국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EU는 2030년까지 2007년 대비 에너지 소비를 3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효율성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Economist / ESG 김호정
02-3770-3630 / hojung.kim@yuantakorea.com

EU-일본 녹색금융 협력 전략

EU 집행위와 일본 환경성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조 달러 규모 민간자본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합리화와 국제기준 정합성 확보를 통한 투자 장벽 해소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EU-일본 양국은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매칭과 기술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와 순환경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U와 일본의 녹색금융 협력은 단순한 양자 간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기후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을 시사한다. 이번 협력은 세 가지 핵심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첫째, 규제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통합이다. EU와 일본이 지속가능금융 기준을 조율함으로써 사실상의 국제표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규제 복잡성 해소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명확한 투자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유럽 간 자본 흐름의 원활화는 녹색투자의 규모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와 기후목표의 동시 추구 모델이 제시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재부상한 상황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현실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더 이상 선택적 과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셋째, 민간자본 중심의 전환금융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국이 1조 달러 규모의 자본 조성을 공약한 것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녹색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U-일본 녹색금융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경제안보, 기술패권, 국제질서 재편과 직결된 종합적 국가전략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공통 목표 하에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구도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혁신, 기술 경쟁력 확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녹색경제 질서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신 · 지주 이승웅
02-3770-5597 / seungwoong.lee@yuantakorea.com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릴레이

국내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7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9월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7월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은 그동안 한국 증시의 주요 디스카운트 원인이 모자회사 동시상장, 일반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반영되지 못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모회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Corporate Action이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최근(9/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상법 개정은 1)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2)분리선출 감사위원 최소 1명 → 2명으로 확대했다.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가 원하는 후보에 몰아서 투표할 수 있다. 즉 일반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분율은 1/(선임이사 총 수+1)이다. 예시로 이사 1명 선임시 50%, 2명 선임시 33%, 3명 선임시 25%이다. 따라서 1차 개정에서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결합한다면 일반주주가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반영되면서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체로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예외적 보유는 주주총회 승인(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3차 상법 개정에서의 맹점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 소급적용 여부이다. 당사는 법개정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 소각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역시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처분 공시 비율이 소각 공시 비율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자사주 취득이 실질적인 주주환원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이후 시작된 3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가치 희석, 일반주주의 의결권 가치 미반영, 자사주 처분 가능성이 낮아지며 국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되는 중

	내용
1차 상법 개정 (7/15 국무회의 의결)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즉시 시행) 2) 감사 선임·해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공포 1년후 시행) 3)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공포 1년후 시행) 4)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 1/4 이상 → 1/3 이상으로 확대(공포 1년 후 시행) 5)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27.01.01부터 시행)
2차 상법 개정 (9/2 국무회의 의결)	1)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의무화 2) 감사위원 분리선출 1명 → 2명 확대
추가 제도 개선 구체화 (법안 발의 중, 9월 정기국회 논의 예정)	**1) 자사주 의무소각** 발의안1) 원칙적 1년내 소각, 예외 보유시 정기주총 승인(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 발의안2) 원칙적 6개월내 소각, 예외 보유허용, 분할합병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발의안3) 1년 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 원칙적 소각, 예외 보유 허용 **2)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주주총회 안건 제안 기준 완화** **3) 특별배임죄 조항 수정 및 삭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02 ESG ETF: 유형별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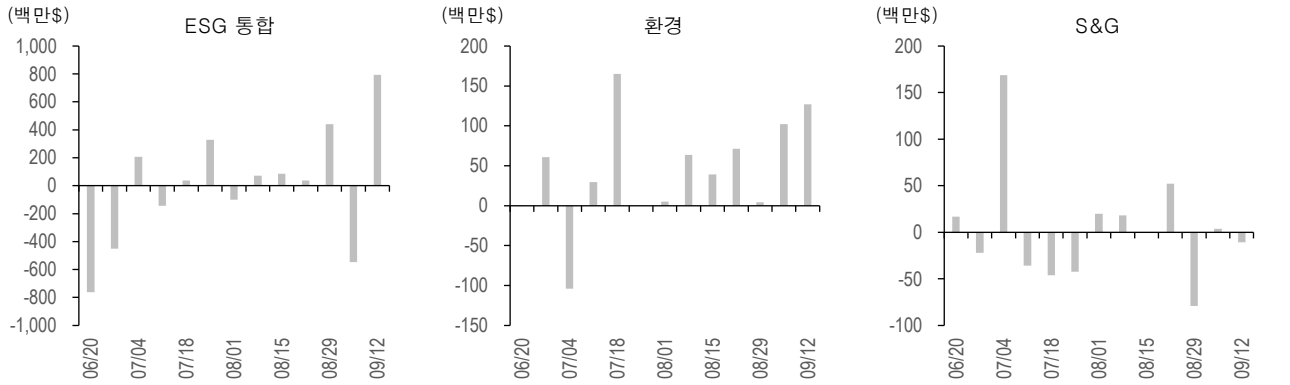
Quant Analyst 신현용
02-3770-3634 / hyunyong.shin@yuantakorea.com

Category 1 유형별 자금 동향

Category 1	AUM	주간 순유출입	4주	52주	YTD
ESG 통합	340,783.2	794.3	725.3	1,421.6	-5,787.3
환경	41,884.3	127.0	304.5	-722.7	291.7
S&G (사회&지배구조)	9,730.9	-10.8	-34.3	-976.4	-753.7
합계	392,398.4	910.5	995.4	-277.5	-6,249.3

주: 2025.09.12 기준 / 단위: 백만$

Category 1 주간 유출입 동향



Category 2 유형별 자금 동향

Category 1	Category 2	AUM	1주	4주	52주	YTD
ESG 통합	전세계 ESG	13,613.3	2.4	92.8	954.7	850.8
	선진국 ESG	284,773.0	518.7	311.1	-3,398.5	-9,735.2
	신흥국 ESG	42,396.9	273.2	321.3	3,865.5	3,097.1
S&G	사회적 기준	9,730.9	-10.8	-34.3	-976.4	-753.7
환경	클린에너지	9,059.4	184.5	382.0	-173.4	275.6
	수자원	10,578.4	6.1	15.9	-357.3	-262.2
	전기차/배터리	1,181.3	-35.5	-84.6	-643.7	-389.8
	수소	539.4	-1.8	-2.6	-87.7	-44.3
	기타환경	19,579.1	-25.2	-4.3	814.4	927.7
	태양광	768.2	-1.1	2.7	-259.4	-217.8
	풍력	178.6	0.0	-4.7	-15.6	2.6

주: 2025.09.12 기준 / 단위: 백만$

Quant Analyst 신현용
02-3770-3634 / hyunyong.shin@yuantakorea.com

순유입 Best 5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 명	총자산	1M	3M	YTD
1	클린에너지	미국	First Trust NQ Clean Edge Smart Grid Infra.	3,574.4	370.3	834.5	990.7
2	선진국 ESG	룩셈부르크	UBS Lux Fund Solutions – EURO STOXX 50	2,731.2	312.0	531.4	1,234.7
3	선진국 ESG	네덜란드	VanEck Morningstar Devel. Mkt Divid. Leader	3,702.6	235.4	660.0	1,974.8
4	신흥국 ESG	아일랜드	iShares MSCI EM ESG Enhanced UCITS	6,354.8	115.1	424.4	507.8
5	전세계 ESG	미국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5,158.4	60.8	300.4	319.2

순유출 Worst 5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 명	총자산	1M	3M	YTD
1	선진국 ESG	아일랜드	UBS Irl ETF plc – S&P 500 ESG Elite UCITS	193.8	-462.1	-447.9	-572.1
2	선진국 ESG	룩셈부르크	AMUNDI INDEX MSCI EUROPE SRI PAB	1,583.0	-357.6	-557.6	-757.6
3	신흥국 ESG	미국	iShares ESG Aware MSCI EM	5,339.0	-82.0	-74.4	-76.8
4	전기차/배터리	중국	Ping An CSI New Energy Auto. Industry	336.6	-41.2	-72.4	-151.7
5	사회적 기준	미국	iShares MSCI KLD 400 Social	4,892.7	-36.6	-113.1	-436.2

주: 2025.09.12 기준 / 단위: 백만$

수익률 Best 5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 명	총자산	1M	3M	YTD
1	전기차/배터리	중국	Ping An CSI New Energy Auto. Industry	336.6	20.7	38.5	39.6
2	수소	미국	Global X Hydrogen	43.9	13.5	32.2	22.6
3	클린에너지	홍콩	Global X China Clean Energy	54.0	12.9	25.6	13.9
4	태양광	아일랜드	Invesco Solar Energy UCITS	42.6	9.6	22.7	22.5
5	신흥국 ESG	룩셈부르크	Amundi MSCI China ESG Leaders Extra	641.6	8.5	16.5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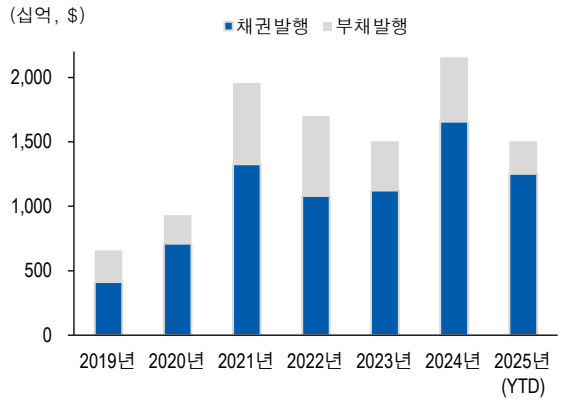
수익률 Worst 5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 명	총자산	1M	3M	YTD
1	선진국 ESG	독일	iShares DAX® ESG ETF (DE)	136.9	-4.1	1.3	27.7
2	수자원	프랑스	Amundi MSCI Water ESG Screened UCITS	1,874.8	-2.0	1.8	14.8
3	기타환경	룩셈부르크	UBS Lux – MSCI Pacific Socially Responsible	1,061.7	-1.5	4.1	12.8
4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MSCI Japan SRI	569.9	-0.9	5.9	15.2
5	풍력	미국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178.6	-0.2	3.9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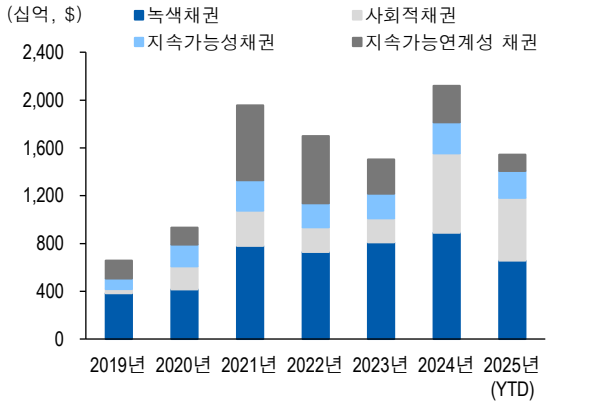
주: 2025.09.12 기준 / 단위: %

Quant Analyst 신현용
02-3770-3634 / hyunyong.shin@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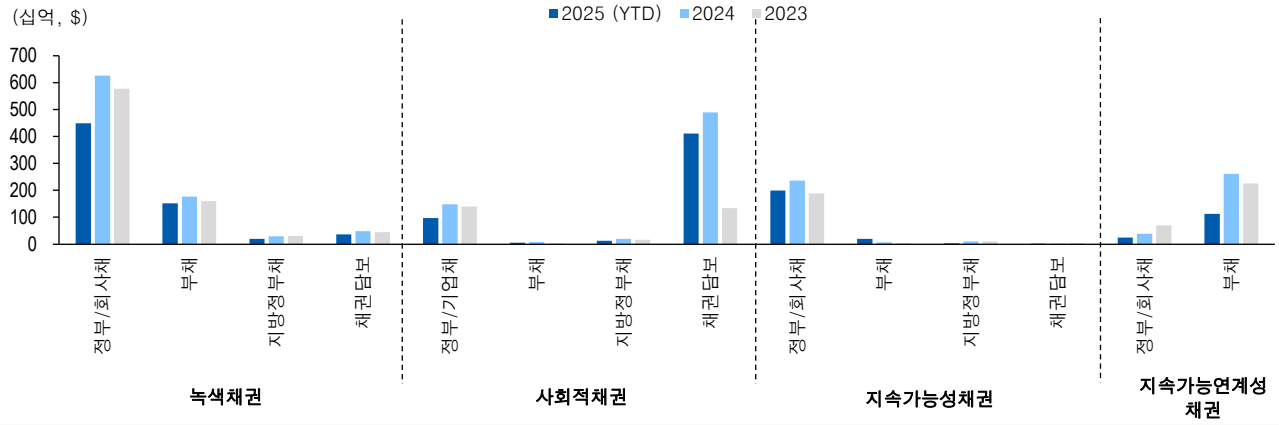
Asset Class 기준: ESG 채권 $1.3조, 부채 $2,530억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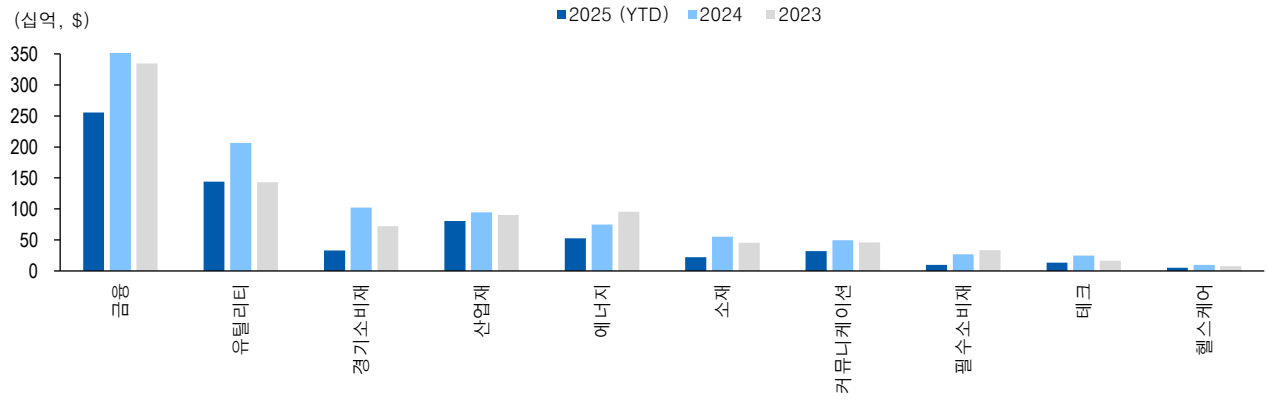
Sustainable 기준: YTD 기준 지난해 발행량의 약 72.8% 달성



Security 기준: 9월 총 $835억 발행, YTD 기준 녹색채권이 가장 많은 발행량($8,803억)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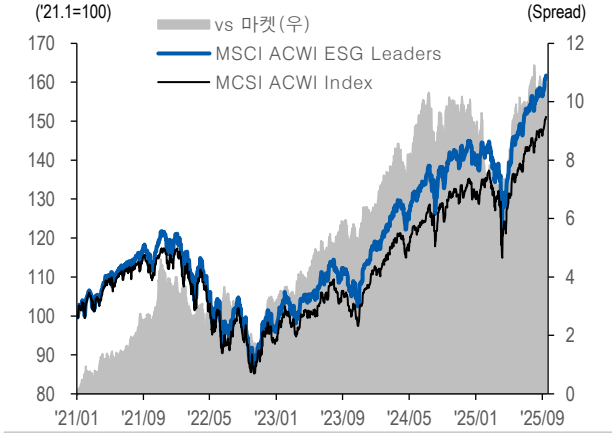
Sector 기준: YTD 기준 금융($3,549억), 유틸리티($2,068억) 섹터가 가장 많은 발행량을 기록. 24년 발행량의 각 72.0%, 69.6% 달성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YTD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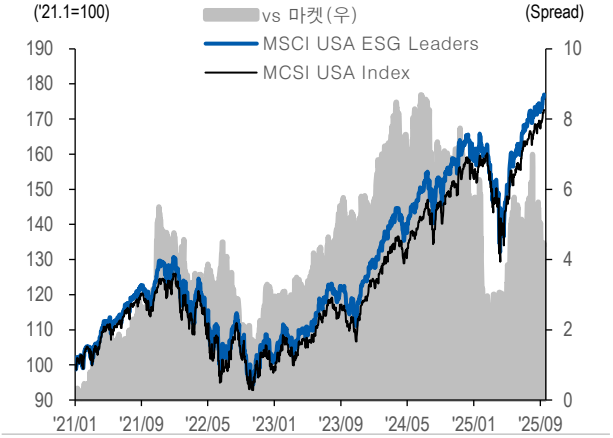
Quant Analyst 신현용
02-3770-3634 / hyunyong.shin@yuantakorea.com

ACWI 지수의 ESG 대비 아웃퍼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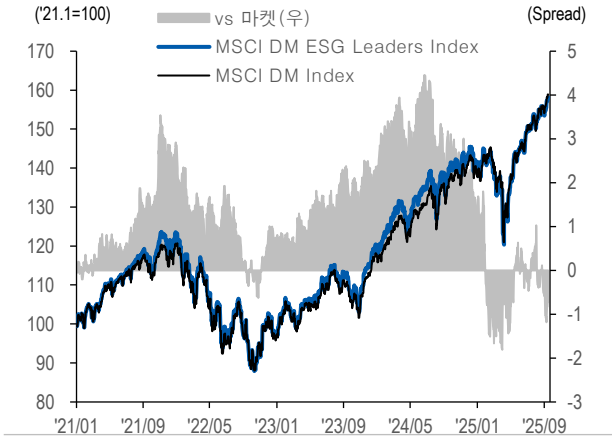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마켓 지수는 ESG 지수를 소폭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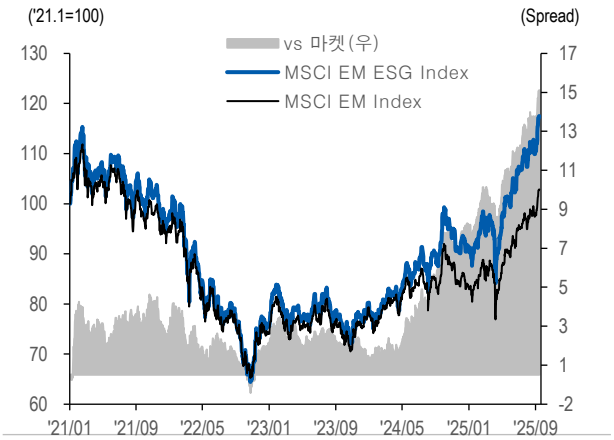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ESG 지수는 마켓 지수 대비 언더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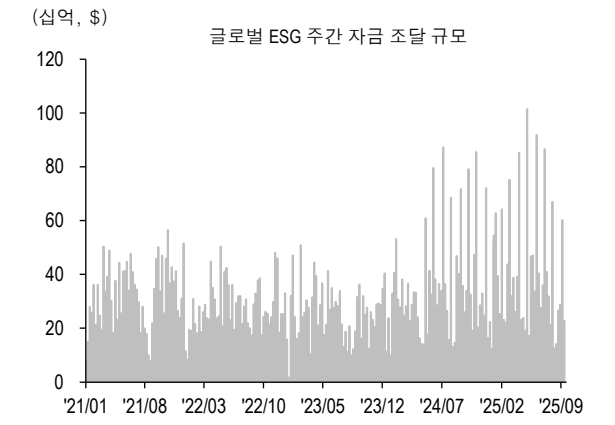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마켓 지수는 ESG 지수 대비 크게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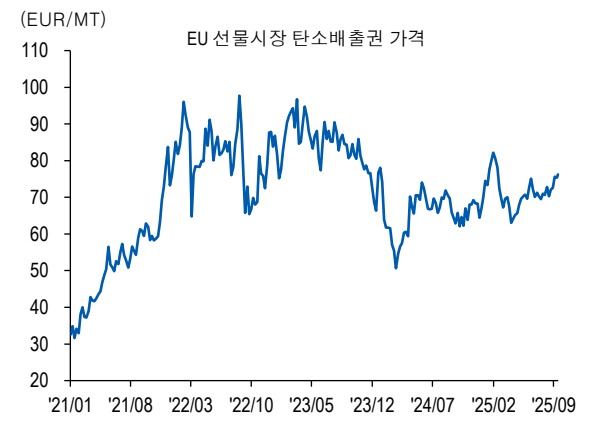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자금 조달 시장, 3분기 4,125억 달러 조달(9월 2주 기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76.2 유로(9월 2주 기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작성자: 김호정, 이승웅, 신현용)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리포트로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공정거래, 주주총회 안건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제 및 내용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